

감꽃을 줍는 여자

박미선

그 여자는 바퀴 달린 트렁크를 마당 한 켠에 내려놓고서 약간 기울인 고개 짓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와 마주 앉아 된장국에 밥을 말아 먹던 중이었는데, 그 여자가 거기 그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밥상이 무참해지는 느낌이었다. 더구나 할아버지가 커다란 풋고추를 막된장에 듬뿍 찍어 요란스럽게 드실 때마다 어쩐지 그녀를 우악스레 몰아내는 것 같아서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끼적이듯 밥을 먹었다.

나는 그녀보다도 난생 처음 보는 그 바퀴 달린 트렁크에 주눅이 들었다. 시골에서는 가방이 필요 없었다. 물건이 아무리 크건 작건 그에 맞춤형 보자가 있게 마련이고 이리저리 싸매서 여자들의 머리에 얹혀져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여자의 발걸음 살짝 뒤에 우아한 태로 그 사뿐히 굴러오는 분홍색 가방이라니…. 리어카도 아닌 터에 손잡이가 달려 있고 바퀴가 달려 있다는 것이 자못 신기할 따름이었다. 그것이 이것저것 구점스레 늘어놓은 시골집 흙마당 위를 요리조리 피하며 대문계에서부터 점차 내게로 다가올 때, 특히 두엄더미 쌓아올린 거름밭 옆을 지나올 때는 무언가 분홍 가방한테 못할 짓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미안해졌다.

나는 형편없는 내 옷차림이 그 핑크빛 트렁크 앞에 부끄러웠다. 도시적 손님을 맞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

“야 애비가 대처로 회사 나가 있으니까 방을 놓기는 하지만서두……. 그래, 신랑은 저녁 때 오고?”

여자는 조그맣게 대답하며 착한 학생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그 색시구먼. 아, 영감은 방 준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객쩍은 소리여? 근데 짐이 그것뿐인가?”

그때 집안 채마밭을 돌아나오신 할머니가 거들었다. 아마 나도 모르는 새 사랑방에 세를 놓기로 한 것 같았다. 읍에서 가까운 동네긴 하지만 시골에서 세를 사는 사람은 드물었는데, 그렇다고 왜 할아버지가 탐탁치 않아 하시는지 잘 이해되지 않았다.

여자가 사랑방에 들고 저녁 때는 젊은 남자까지 역시 단출한 짐을 들고 와 합세했다. 다음 날부터 당장 이 도시적 남녀 한 쌍은 우리 마을의 화제가 되었다.

“지들끼리 눈 맞아서 부모 몰래 도망 나온 거 아녀?”

“맞어, 아무리 부부행사를 해봤자 다 표나기 마련이여. 살림이라봤자 손갈 몽다리 밖에 없다 하드만.”

동네 어디를 가나 이런 수군거림이 들려 왔다. 그들은 정말 무얼 먹고 사는 지 몰랐다. 엄마가 툴툴이 반찬을 갖다 주기는 하지만 정말 그것을 먹는 지는 의문이었다. 왜냐하면 사랑방에 딸린 작은 부엌의 아궁이에 불이 지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불을 때지 않고 어떻게 밥을 해먹고 있는 것인지 신기할 따름이었다. 여하튼 읍내 어느 사무실을 다닌다는 남자가 저녁 퇴근 때마다 들고 오는 봉지 안에 그들 생존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햇살에서 분결처럼 고운 훈기가 품어 나오는 오월에 들자, 동네는 이런저런 꽃내음으로 덮이기 시작했다. 살구나 복숭아꽃, 산수유는 진작 피었다 지고, 아카시아와 밤꽃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피었다. 특히 밤꽃의 그 비릿한 내가 문득 코 끝에 묻어올 때는 어쩐지 콧속을 파내고 싶을 정도로 마땅치 않았다. 우리집의 사랑방 그녀가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기 시작한 것도 거의 그때쯤이었던 것 같다.

동네가 한창 모내기 준비로 일손이 바쁘게 돌아갈 무렵, 그녀는 하늘거리는 치마를 입고 여기저기 피어나는 꽃을 꺾으러 돌아다녔다. 동네 앞 독방길을 다니며 풀꽃을 따기도 하고 시냇가로 내려가 모래성을 쌓으며 신랑이 걸어올 물 건너 읍내 다리 쪽을 목을 늘이고 한참씩 바라보기도 했다.

그런 여자의 모습은 겨울 한 철 빼놓고는 흙투성이가 되다시피 논밭일로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시골 아낙들의 조소의 대상이 되었다.

“쫓쫓 사람이 저리 노곤해 갖고 하는 일 없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아아들 소꿉을 살아도 저리 할 일이 없지는 않을 거구만. 꽃나부랭이나 붙잡고 원 하소연을 하나……. 사람 흥내를 내고 살아야지. 꼭 혼이 나간 사람 한가지여.”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도 정신없이 콩밭의 잡초를 뽑아 던지며 시골 아낙들은 여자의 흥을 보았다.

그녀는 시골 사람들과 한 동네에 몸담고 있기는 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삶을 살고 있었다. 무엇을 하는지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지 않으면 꽃을 꺾으러 돌아다니거나 시냇가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다가 저만치 독방길로 남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이면 꽃을 손에 쥘 채 한 걸음에 달려가 매달렸다. 향용 부모에게서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연인들이 그러하듯이 그들 사이에서는 유독 애뜻하고 비릿한 정이 흘렀다.

그들의 삶은 내가 그즈음 읽기 시작한 계몽사 출판의 <소년소녀 아동 문고>에 등장하는, 어쩐지 아름다우면서도 신비로운 여자들의 삶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나의 생활 옆에서 바로 살고 있었지만, 나의 손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일상 생활을 영위한다기보다 그저 아득한 세계에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었다.

비가 흠뻑리고 나서 활짝 개인 어느 날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 울타리 쪽으로 접어들니 그녀가 고샅길에서 무언가를 줍고 있었다. 그녀의 한 쪽 손에 뽀얗게 담겨 있는 것은 감꽃 무리였다. 그녀는 나를 손짓해 부르더니 내 손바닥 안에 감꽃을 맡겨 두었다. 그리고 계속 감꽃을 주었다. 우리집은 감나무집으로 불릴 정도로 감나무가 많아서 감꽃이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다른 꽃들처럼 쉽게 손에 넣을 수 없고, 감나무가 제 몸을 비워 떨어주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가끔 감꽃을 주워 입에 넣고 한참씩 씹어 단맛을 음미해 보기도 했다.

그녀가 전해 준 감꽃을 양 손 가득 받아 드니 아기의 살 냄새 같은 향기가 물씬 풍겨왔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레 사랑방 앞의 섬돌까지 운반해 주었다. 여자는 그 앞에 앉아 커다란 꽃목걸이를 만들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엄마 심부름으로 반찬 등속을 전해 주러 사랑방 문을 열었다. 노크라는 것을 몰랐던 나는 무심코 벌컥 문고리를 잡아 당겼고, 그때까지 이부자리 속에 들어 있던 그들은 황망히 옷을 껴었다. 흐트러진 이부자리 근처에 어제 그녀가 만들었던 감꽃 목걸이가 흩어져 있었다. 방 안에서는 무언가 아릿한 냄새가 흘러 나오는 듯 했다. 감꽃과도 닮은 그 향취에는 내가 접해 보지 못한 어떤 비의가 간직되어 있는 것 같았다. 벗고 있던 그들보다도 어쩐지 내가 더 부끄러워지는 느낌이었다.

유두만했던 푸른 감이 차츰 커지고 감나무 그늘이 더욱 짙어갈 무렵, 샘가에서 여자는 붉어진 얼굴로 엄마에게 아이를 가졌다고 수줍게 말했다.

정념어린 여름 햇살이 가을의 맑은 대기에 행구어지고, 선선한 바람이 일며 이번에는 감들의 얼굴에 홍조가 들어갈 즈음, 여자의 배도 봉긋하게 불러왔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낮설고도 점잖게 생긴 부인네가 찾아 왔다. 그리고 여자는 그 분홍색 트렁크를 끌고 그 부인의 뒤를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 채로 따라갔다. 별반 살림이랄 것도 없는 것은 나중에 동네 아저씨가 실어다 주었다고 했다.

“애를 가졌으니께 이제 워쌀 수 없지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더라고, 지들 좋다는 데야 별 수 있나…”

그 해에 어른들이 감을 따는 감나무 밑에서 나는 어쩐지 자꾸 여자의 얼굴

을 떠올렸다. 그녀가 내 손바닥 안에 전해 주던 감꽃 무더기, 같이 감꽃을 주워 먹던 기억, 감꽃이 널려 있던 그 이부자리, 그 혼몽스런 향취의 기억이 할아버지가 감을 따기 위해 비트는 장대 끝을 아득히 올려다 볼 때마다 아찔한 취기처럼 머리 속에 어질거리며 휘감겨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감꽃을 많이 먹어 아기를 가지게 된 것은 아닐까.

엄마가 붓도랑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돌확 위에 처음 보는 유난히 하얀 비누가 한 장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걸리적거린다는 엄마의 지적구를 먹어가며 나도 옆에서 비누를 칠해 빨래를 비볐다. 하얀 비누에서는 그동안 사용했던 거무스름한 비누보다 우유빛 거품이 금새 뽀얗게 일어났다. 처음 느껴보는 부드러운 거품의 환희였다. 나는 자꾸만 비누칠을 하여 한정 없이 거품을 냈다.

“야 좀 보게, 아까운 비누 다 닳는다.”

엄마는 비누를 뺏어 빨래 광주리 안쪽에 감추어 놓았다.

나는 내 손목까지 부풀어 오른 비누의 거품 속에 아득히 잠겨 있었다. 그 동글동글한 기포는 감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 거품에 묻혀 있으려니, 그것은 마치 한껏 살이 부풀어 오른 아기의 몽실몽실한 팔목을 만지는 기분이었다. 그 여자는 얼마만큼 배가 부풀었을까, 그 둥근 배 안의 아이는 사내아이일까 계집아이일까.

그 후로도 나는 가끔 시골 어른들의 팍팍한 일상적 삶과 섞여 돌아갈 때, 혼자 휴식처럼 그 여자를 떠올리곤 했다. 그녀의 분홍빛 트렁크, 그녀가 꺾어 들이던 꽃들과 석양빛을 받으며 쌓던 모래탑…….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감꽃 목걸이는 내 지친 의식에 부드러운 화환을 씌워 주곤 하는 것이었다. 그 느낌은 우리 식구 누구도 줄 수 없는 은밀한 달콤함이었다.

또한 그것은 결 고운 흰 비누만이 낼 수 있는 비의적 힘이기도 하였다.

- 아버지 우라노스의 피는 아프로스(거품) 상태로 오랜 세월 바다를 떠다니다가 어느 날 이 거품에서 아름다운 여신이 태어났으니 바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였다.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中-